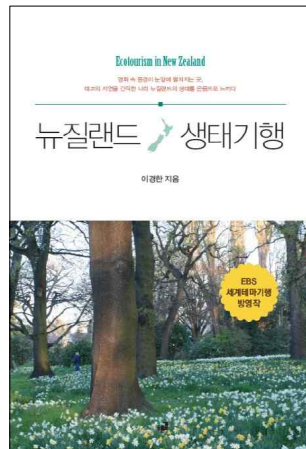


생태기행, 왜 뉴질랜드인가?

— 이경한, 『뉴질랜드 생태기행』

— 푸른길, 2015 —

김다원*



생태기행, 왜 뉴질랜드인가?에 대해 저자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뉴질랜드 여행에서 경험한 천연의 숲을 보면서 나도 자연의 일부임을 새삼 확인하였다. 그리고 내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추구하는 책무를 지닌 존재임도 알았다(251쪽).” 서평자가 『뉴질랜드 생태기행』에 대해 서평을 쓰게 된 배경은 저자의 느낌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평자도 2010년 뉴질랜드 기행을 다녀왔다. 뉴질랜드 기행을 하면서 책과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 들었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느낌과 즐거움을 얻었다. 그 만큼 뉴질랜드는 책속의 내용으로 탐색하는 것보다는 현장기행으로 탐색하는 과정에서 훨씬 색다른 즐거움과 감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자가 뉴질랜드 남섬을 구

*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veritas2@gnue.ac.kr

석구석 밟으며 오감으로 체험한 것을 토대로 서술한 본 『뉴질랜드 생태기행』은 생태환경의 관점에서 뉴질랜드를 새롭게 조명하여 새로운 뉴질랜드를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도 또한 뉴질랜드의 새로운 생태환경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여 만든 작품이라고 말한다.

뉴질랜드는 한반도의 1.2배 정도 면적이지만 인구 약 500만의 국가이다. 그나마 작은 면적의 북섬에 뉴질랜드 전체 인구의 75% 이상인 400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남섬에는 약 10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 북섬이 화산섬의 특징을 많이 드러낸 반면, 남섬은 빙하지형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 지역이다. 그 만큼 화산지형과 빙하지형이라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지닌 곳이다. 그래서 ‘뉴질랜드’는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세계적인 청정지역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반지의 제왕, 아바타, 주라기 공원 등과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뽀뽀한 원시림은 뉴질랜드의 자연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리교육학자인 저자는 뉴질랜드의 그러한 자연지형에 주목하여 뉴질랜드 남섬의 생태환경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그 감성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내보인다. 동시에 지리교육학자로서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법도 찾아 제시한다. 저자의 뉴질랜드 생태기행을 따라가 보자.

1. 뉴질랜드 남섬의 생태환경을 답다.

저자의 뉴질랜드 생태기행은 남섬에서 시작한다.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동부 해안의 크라이스트처치(Christ Church)에서 시작하여 북동쪽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카이코우라, 중앙

부 서던 알프스 산지에 있는 쿡 산과 퀸스타운, 테아나우, 그리고 서부 해안에 위치한 밀퍼드 사운드와 남섬의 끝 스튜어트 섬에 이르기까지 남섬을 종횡으로 구석구석 누비면서 생태환경을 꼼꼼하게 보고 관찰한 것을 보여준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해글리 공원과 빅토리아 공원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원의 도시에 주목한다. 특히 잦은 지진의 피해와 위험성을 안고 있는 곳이지만 오히려 자연에의 애착과 경외감으로 자연과의 조화로움을 가꿔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표현한다. 도시 한 가운데로 흐르는 에이번 강과 그 강 주변에 형성된 해글리 정원, 그리고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의 배경이 되는 캔터베리 평원을 중심으로 크라이스트처치 도시의 생태환경을 조명한다.

카이코우라 도시에 대해서는 ‘산과 구릉과 바다와 함께 조화를 이루며 펼쳐진 캔터베리 평원은 한편의 모자이크를 닮았다(40쪽)’라는 표현에서처럼 작은 규모의 도시이지만 캔터베리 평원에 담겨진 목가적인 풍경과 다양한 나무들이 어우러져 자아내는 풍광에 주목한다. 또한, 인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고래관광을 통해 살짝 생태환경이 꼭 자연에만 이로운 것이 아님을 드러내기도 한다. 동시에 카이코우라 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산맥, 단층, 선상지, 만과 반도, 그리고 지진 발생이 잦은 지층 불안정 지형에 대한 소개를 통해 생태환경의 배경이 되는 지리적 환경을 덧붙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환경은 지리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음은 빙하와 눈으로 하얀 곳, 쿡 산 기행이다. 쿡 산은 지리학자들에게는 더없이 보물같은 답사지역이기도 한다. 그런 만큼 저자에게도 쿡 산은 상당히 이국적이면서도 흥미로움을 갖게 한 곳이었다.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빙하지형을 소개하면서 빙하가 만들어내는 지형에 주목한다. 빙하의 형성과 진행 과정, 빙하에 의해 만들어진 빙하호, 빙하천, 퇴석류 등 빙하의 모든 것을 이 곳 빙하를 통해 소개하는 것은 지리학자가 아니라면 보여줄 수 없는 지형의 형성 과정과 형성 요인을 꼼꼼하게 설명해 준다. 또한 빙하에 의해 만들어진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 예찬이 빠지지 않았다. 특히 한적한 이곳에 우뚝 세워진 ‘선한 양치기 교회’, ‘양치기 개 콜리의 동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만든 조형물도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때는 더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낸다는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

다음은 남섬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남북으로 뻗은 서던 알프스 산맥의 정상부에 위치한 퀸스타운이다. 퀸스타운에서는 인근의 리마커블 산맥과 와카티푸 호수에 주목한다. 리마커블 산맥을 중심으로 형성된 빙하호인 와카티푸 호수의 깨끗하면서도 아름다운 풍광과 산맥과 호수 사이의 평원이 만들어내는 경관을 통해 ‘자연경관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말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퀸스타운에서는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삶에 주목한다. 자연환경에 걸맞게 형성된 고지대의 도로, 도시 내 관광객 상대 건물들이 서있는 모습에서 사람들의 삶은 자연환경에 맞춰져 있다는 환경결정론이 현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다음은 테아나우 관광도시 탐색이다. 퀸스타운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테아나우 호수 초입에 있는 도시이다. 이 곳에서는 뉴질랜드 멸종 위기 새인 타카헤, 카카포, 코카코 새들의 역사를 말해준다. 저자는 새들의 멸종 과정을 통해 생태 환경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리고 테아나우 반딧불이 동굴 이야기, 석회암 동굴 이야기, 그리고 케

플러 트레킹을 통한 테아나우 호수의 숲길 체험, 테아나우 밤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투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테아나우 도시의 생태환경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동시에 생태 환경에의 관심을 유도한다.

다음 기행지는 밀퍼드 로드의 아름다운 길이다. 밀퍼드 로드는 뉴질랜드 생태기행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곳곳의 청정한 이색적 장면들이 오감활용 자연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맑은 호수가 자연을 품은 듯 보여주는 거울 호수, 빙하가 만들어내는 빙식 U자곡, 빙하평원에서부터 남섬 유일의 동서 횡단로인 호머터널은 이 곳 생태환경의 대표작들이다. 특히, 호머터널의 일방통행로의 모습, 터널 안은 암반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차선은 폭이 좁은 일방통행이어서 교대로 반대편 차량과 통행 신호에 맞춰 통행을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뉴질랜드인의 환경마인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저자도 이 점에 주목한다. 생태환경은 자연환경이 풍요롭게 자리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려는 거주민들의 노력이 보태져야 함을 말한다.

특히, 밀퍼드 사운드와 다웃플 사운드에서 보게 되는 빙식 U자곡(일명 피오르라고도 한다.)에 대해서 주변의 폭포와 함께 빙하기, 빙하 침식지형의 단어를 활용하여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한다. 저자는 밀퍼드 사운드야말로 ‘피오르 지형의 전형을 보여준다(184쪽)’고 말한다. 자신을 19세기 뉴질랜드 해안을 향해하다가 강한 비바람을 피하여 정박할 곳을 찾는 탐험대원인 양 감정이입을 하며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오면 더욱 좋다는 감탄과 더불어 빙

식곡을 자세하게 묘사하여 표현한다. 또한 스틸링 폭포, 보엔 폭포, 그리고 밀퍼드 사운드의 권곡을 통해 빙식곡의 모습을 세세하게 묘사해 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 기행에서 저자의 마음을 가장 생생하게 사로잡은 곳은 남섬의 끝이었다. 남섬의 끝은 더니든, 블러프, 오타고 그리고, 펑귄 섬 스튜어트 섬으로 보여준다. 특히 남섬의 끝에는 특이한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로, 앨버트로스와 펑귄, 그리고 영국인들이 가져왔다는 가시금작화, 돔의 일종인 블루마키 등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특이한 생물들의 서식지이기도 한다. 저자는 그 생물들에 주목하여 그 곳 남섬의 끝 지역의 생태환경을 찾아 보여준다. 그리고 생태 환경의 보존 이유를 가장 힘주어 강조한다. 즉, 그 곳에서 저자는 자연이 인간에게 공존의 길을 묻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 기행에서 저자가 느낀점과 저자의 본 도서 저술의 배경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저자는 뉴질랜드 남섬의 동부에서 서부, 북부에서 남부에 이르기까지 종횡으로 탐색하면서 뉴질랜드 남섬 생태환경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한다.

2. 뉴질랜드 사람들의 환경마인드를 담다.

저자의 뉴질랜드 기행은 생태환경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환경은 그 안에 인간의 삶이 담겨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인간의 삶이 내재한 경우라면 자연환경은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에 불과할 것이나 인간의 삶이 담기는 경우라면 자연환경은 더 이상 물리적 공간이 아닌 삶의 장소가 되기 때문

이다. 저자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다. 생태 기행 장소들에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삶을 가꿔가는 사람들의 자연과의 공존방식을 주목하여 서술한다.

첫 기행 장소였던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해글리 공원과 빅토리아 공원을 통해 크라이스트처치를 정원의 도시로 만들어 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를 들춰내면서 생태 환경 만들기에서 인간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곳에 정착한 초기 정착민들이었던 영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담은 건축물과 정원 문화를 소개하면서 뉴질랜드 생태 환경의 특징을 거주민의 삶의 방식과 연계지어 설명하는 부분들은 여느 여행서에서 보기 드문 기행서로서의 특징을 드러낸다.

카이코우라에서는 ‘고래’라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하여 고래박물관, 고래생태관광을 이끌어 온 그 지역 사람들의 역할을 조명한다. 한때 고래에 대한 남획으로 인해 고래 수 급감의 위험을 겪었지만 고래 박물관 건립과 고래 생태관광 기획을 통해 생태 관광지로 발달시켜 온 지역민들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 생태 환경은 청정 자연환경을 지닌 뉴질랜드인들의 혜택도 있겠지만 그런 환경을 지키고 유지하는 뉴질랜드인들의 마인드의 결과물임을 얘기한다.

다음은 쿡 산이다. 쿡 산은 말 그대로 남섬 서던 알프스 산맥의 고산에 해당한다. 쿡 산의 빙하가 만들어 낸 빙하호와 빙하천이 주된 경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을 사람의 거주지로 만드는데 역할을 한 힐러리 경을 통해 쿡 산 거주민의 거주 역사와 현재 거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쿡산 자연 환경 안에서 담아내는 노력을 보

인다.

다음은 관광의 도시로 발달한 퀸즈타운이다. 퀸즈타운은 남섬 서던 알프스 산맥 산지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퀸즈타운은 현재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이 만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다. 테아나우 도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도시에 내재된 거주민들의 거주 역사, 생태관광지로 발달시킨 사람들의 노력을 반딧불이 동굴과 캐플러 트레킹, 별자리 투어를 통해 소개한다. 밀퍼드 로드는 뉴질랜드 사람들의 생태 마인드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다. 동부와 서부는 긴 서던 알프스 산맥으로 인해 통행이 간단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부-서부 간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의 편의보다는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뉴질랜드인의 마음의 결실은 유일한 도로로 밀퍼드로드 하나를 건설하였고 그것도 최소한의 넓이와 최소한의 자연 훼손을 감안해서 건설한 모습을 자세하게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남섬의 끝 더니든, 블러프, 오타고, 스튜어트 섬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의 노력과 실제 그들의 친환경적 삶을 묘사한다.

3.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묘안을 찾아낸다.

저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도착 당시 공항의 풍경을 보면서 ‘공항 출구 통로는 특이하게 아니 요란스럽게 장식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맘 속으로 뭘 이렇게 유치하게 치장을 했냐고 생각하며 입국했다(250쪽).’ 라고 쓰고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기행을 마치고 출국하면서 같은 통로를 보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음을 제시한다. ‘나는 그 새소리가 뉴질랜드 앵무새인 키아의 소리이고 통로를

가득 채운 숲이 루트번 트랙에서 본 뉴질랜드 온대우림임을 알고 있다. 그 숲 사진에는 뉴질랜드의 상징인 고사리 나무도 보이고, 매우 많은 강수량으로 형성된 온대우림으로 고목에 붙어 있는 이끼들도 보였다. 뉴질랜드를 떠나는 지금, 비행기 트랩 통로의 녹음과 새소리가 낯설지 않고 아주 친숙하다(251쪽).’ 저자는 뉴질랜드 기행을 통해 친환경이란 무엇인지, 환경교육에서 현장 체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준다. 환경교육 관련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되돌아보게 한다. 교실에서 다양한 방법(예를들어, 토의, 토론, 탐구 학습 등)으로 환경 교육을 시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마음 속에 환경 사랑과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심어주기에는 쉽지 않았다. 저자의 마무리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체험학습’이라는 이름하에 국내외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는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 관광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 현장에 대한 장소감은 오히려 부정적이거나 별다른 학습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관광은 사회문화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저서는 ‘현장 체험’이라는 목적을 지닌 체험학습이나 관광에서 생태기행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생태기행의 방법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 생태환경, 뉴질랜드 사람들의 환경 마인드와 그들의 삶을 낱알이 보여주면서 느끼게 한다. 뉴질랜드 생태기행이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 생태환경의 모든 것’과 ‘생태기행의 방법’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현장답사가 하나의 대안임을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 도서는 뉴질랜드 생태환경 자료로서 뿐 아니라 체험학습을 위한
참고도서로서도 적합성을 지닌다.

서평을 마무리하면서 다소 부담이 느껴진다. 글재주가 뛰어나지
않은 본 서평자가 본 저자의 깊은 생각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다. 본 서평은 서평자가 읽고 이해한 것에 한
하여 평한 글임을 밝혀두고 싶다. 서평자가 이해하지 못했던 더 깊
은 내용들도 본 저서 안에 담겨져 있음을 독자에게 전하고 싶다.